

주간농사정보

2022. 1. 30. ~ 2022. 2. 5.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금주에 꼭 실천해야 할 주요 농업기술 정보를
농업인들에게 매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약

벼농사를 위한 볍씨 준비로 저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건전한 씨고구마 준비, 마늘·양파 월동 관리, 월동기 과원 병해충 방제와 동해 피해 예방에 힘쓰고, 축사 예방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을 자주 실시해야 한다.

1. 벼농사

- 자가 채종한 농가와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시군농업 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검사를 받은 후 사용한다.
 - 등숙기에 잦은 강우에 따른 수발아 피해 발생 종자의 발아율은 70~72%로, 정상 종자(97~98%)보다 낮으므로 발아 검사가 필요하다.
- 벼 종자 저장 중에 발생하는 곰팡이나 해충은 악취, 변색, 발열, 독소 등을 생성시켜 벼 품질손상의 원인이 되므로 저장고에 건조 저장용 송풍기의 동력전달 벨트 장력과 보조열원 장치의 작동 유무 및 부대 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 발작물

- 고구마 재배를 위해 10a에 필요한 묘는 4,500~7,100본 정도이고 매획 1,500~2,200본의 짝을 생산할 수 있는 씨고구마를 준비해야 한다.
- 고구마 재배를 위한 씨고구마는 병들지 않고 건전하며 품종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저장 중 냉해를 입지 않은 고구마를 선택하여야 한다.
- 씨고구마에 전염되는 검은무늬병, 건부병, 검은점박이병, 덩굴쪄김병 등의 발생이 염려되므로 침투성 살균제로 소독하거나 온탕소독을 실시한다.

3. 채 소

- 마늘·양파 월동관리로는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포장에서 땅이 얼었다가 녹을 때 서릿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솟구쳐 올라온 포기는 즉시 잘 눌러주거나 흙덮기를 실시한다.
- 잡초의 발생이 많으면 양파 수량 및 저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기에 잡초 제거해주고 작업 시에는 뿌리나 잎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 연약하게 자란 포장이나 물빠짐이 불량한 곳에서 노균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월부터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 고추 육묘상은 잘록병 방지를 위해서는 야간의 저온을 방지하고 과습되지 않도록 하고 육묘 중 저온피해를 받았을 경우 응급처치로 요소 0.3%(물 20L당 요소 60g)액을 잎에 뿌려주어 생육을 회복시킨다.

4. 과 수

- 월동기 병해방제를 위해 전년도에 발생한 나무줄기, 거친 껍질, 낙엽 등에서 월동하고 있는 병원균을 제거하여 밀도를 낮추면 생육기에 방제를 수월하게 할 수 있다.
- 과수화상병 등 주요병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 사용한다.
- 동해피해 예방하려면 과일나무의 한계온도 조건을 확인하고 지면 위 나무 원줄기 부분을 보온자재로 감싸 피해를 최소화하며, 지형이 낮아 찬 공기가 정체되기 쉬운 주변 과수원 등은 다른 곳보다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관리한다.
- 동해피해 발생 직후에는 피해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전정 시기를 늦추고, 피해 여부를 확인한 후 전정한다.

5. 축 산

-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며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의심축 발생 시 방역기관(1588-9060/155-4060)에 즉시 신고한다.
- 화재 예방을 위해 농장 규모에 맞는 전력을 사용하고, 전력 초과 예상 시 즉시 전력사용량을 변경한다.
- 축사 환경온도가 적정온도 이하로 떨어질 경우 체열 유지를 위해 사료섭취량이 증가하고 사료효율이 감소하게 되므로 축사 내 적절한 환경을 유지한다.